

01 교회소식

크리스천이 누리는 행복

최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찬양과 기도, 말씀이 필요하다.

02 생명의 말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양선은 마음에 있는 선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에 양선의 열매를 온전히 맺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03 기획특집

또 다른 보혜사

성령강림절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주님은 내 영혼의 반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꿈을 통해 생명의 계단으로 인도받아 가정이 변화되고 가족의 질병도 해결받은 임보송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892호 2019년 6월 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이 주시는 ‘심’과 ‘힐링’으로의 초대!

성령 충만한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악신이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신이 떠났으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종 예배나 모임 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올림으로 찬양의 위력을 체험하고 있다.

이예욱 집사(57, 1대대 5교구)는 편두통과 전정기능장애를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특별 찬양 시간에 치료받았다.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찬양하니 시간 내내 온몸에서 땀이 흘렀고, 그 뒤 두통과 어지럼증 등 모든 증상이 사라진 것이다.

정혜나 자매(18, 고2선교회)는 “생후 4개월 때 화농성 고관절 염증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금요철야예배 2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온몸으로 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한다.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금요철야예배 2부는 아동과 학생은 물론 청·장년과 노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 준비찬양은 30분 전에 시작되며 1부를 마치고 30분 후부터는 2부 ‘찬양과 기도’ 시간이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이어진다.

이 외에도 ‘화요찬양예배’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청년선교회와 가나안선교회로 나눠 진행되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토요찬양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는 유통업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을 위한 빛과 소금선교회 찬양예배가 있다.

말씀퀴즈대회, 모의시험 진행 중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길과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깊이 심어져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바히 들을 수 있으며, 이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성구 한 절 암송하기’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는 2000년부터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최로 매년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19회를 맞는 말씀퀴즈대회는 1차, 2차 예선이 8월 25일, 본선 대회가 9월 29일에 열린다.

지난 5월 26일(주일)에는 올해 말씀퀴즈대회 1차 모의시험이 진행됐다. 성전 앞에 비치된 1차 모의 시험지를 풀 뒤 응모함에 제출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추첨해 참가 상품이 주어진다. 다음 모의 시험은 6월 30일, 7월 21일, 8월 1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선교회에서는 성경 읽기, 잠언 필사 대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7월과 9월에 진행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 행함으로 이루며,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매일 밤 9시에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물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 국내외 수많은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와 생명, 응답과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

오는 7월 8일부터 21일간 만민기도원에서 주관하는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 기도회 1차가 열린다. 상·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로 42일간 진행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를 1, 2차로 나눠 7월과 9월에 진행한다.



양선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양선(良善)을 문자적으로 풀면 ‘어질고 착하다’는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곧 진리 안에서 선을 좇아 행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선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에 양선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 양선의 열매란 무엇인가

1) 성령의 소육을 좇아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을 좇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지요. 그런데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양심이란 ‘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부모로부터 어떤 기를 받고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달라지지요. 같은 부모와 같은 환경 속에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양심은 다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양심적이라는 사람도 결국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을 추구할 뿐 절대적으로 선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항상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기준 삼아 행하려는 마음이 바로 ‘양선’입니다. 곧 성령의 소육을 좇아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없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행함으로 드러나 외면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선이 배어나옵니다(마 12:35 ; 잠 22:11).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덕과 사랑을 베풀지요. 혹여 선을 사모한다면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우쳐 나가지만, 막상 선을 쌓는 모습은 부족하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선을 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범사에 선을 택해 나가는 마음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습니다.

양선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내 생각과 성품에 안 맞는 일에도 마음과 뜻을 모아줍니다. 겸손하며, 드러내고자 하거나 인정받으려는 허영심도 없지요. 상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해도 중심에서 존중할 수 있고 참다운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혹 나를 애매히 괴롭힌다 해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감싸 주며, 섬기고 낮아지려 하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함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일에도 마음을 쓰지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한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피해가고, 어느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로, 백성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해야 할 순간에 행함을 보이지 못했지요.

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양선의 마음이 있었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이나 시간에 손해를 본다 해도, 아무리 갈 길이 바쁘다 해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차마 버리고 갈 수는 없었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돕고자 했습니다.

만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해서 그냥 지나쳤다면 그 마음에는 두고두고 무거운 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곧

선을 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범사에 선을 택해 나가는 마음, 양선입니다.

3) 다투거나 들레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

마태복음 12장 19~20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했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처럼 누구와도 걸리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습니다. 상대의 티나 허물을 말하지도 않지요. 드러내 높임 받으려 하지 않고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한다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혹여 마음의 다툼이 있다면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며, 상대가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품지 못하는 작은 그릇이고, 부딪히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틀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온다면 아직 마음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양선의 마음이 있으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마 그 생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찌 하든 살 길을 열어 주고자 하지요. 영적으로 ‘상한 갈대’란,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하고, ‘꺼져가는 심지’란 마음이 악으로 심하게 물들어서 그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오히려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여 비난하거나 헐뜯기도 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면 마음을 함께 모아 주지 않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양선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악을 발하는 그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들을 품습니다. 굳이 시비를 따져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꺾고자 하지 않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선대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오히려 감동을 줍니다.

물론 상대가 너무 악해 선하게 대해도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자 애쓰는 마음이 양선입니다.

2. 양선의 열매에서 부각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선을 좇아 행하는 힘'

진리 안에서 선을 좇아 행하는 '양선의 열매'가 다른 성령의 열매와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은 자비나 사랑, 혹은 구제와 긍휼이 아닌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면 화평과 겸손이 아닌가?", "이런 덕목들이 다 양선에 포함되는가?" 등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물론 사랑, 구제, 긍휼, 자비, 화평, 겸손도 결국 선에 포함되는 덕목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이기에 그 영역이 광범위하지요.

그러나 '양선'에서 부각되는 측면은 그러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로 선을 좇아 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긍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선한 마음을 말하지요.

또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다는 것은 화평과 겸손의 마음이지만 화평을 깰 수 없는 마음, 자신이 낮아지더라도 견비한 것을 더 좋아하는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양선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면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분야에 소홀히 하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을 받지 않고 참으려면 스스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서 따지고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하지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한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반면, 선한 사람은 스스로 선을 좇지 못했을 때는 자기 손해를 본 것보다 더 불편하며 두고두고 마음이 쓰입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일도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누리지 않는 편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지요. 이렇게 범사에 선을 좇아 행해야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으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것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과 여인 등 120명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느니라.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이후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 많은 교회가 탄생했고,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승천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성령강림절을 맞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살펴본다.

01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에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세상으로 좇아 온 것(요일 2:15~16), 썩어 없어질 육의 것, 사망에 이르는 죄 등을 분별케 하신다.

또한 마음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곤고함을 주시니 세상을 취하다가도 성령의 탄식을 느낌으로 돌이킬 수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불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입혀져 세상 것을 쉽게 끊을 수 있다. 이처럼 세상을 끊고자 노력하는 자녀들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마음만이 아

닌 반드시 행함이 따를 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신다(롬 14:17).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물리칠 힘이 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상 오락을 끊고자 노력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눈에 보이는 축복도 주신다.

02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면, 성령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롬 8:14~16).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마음에 대해 깨우쳐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함께하시며 역사해 가신다.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 양육해 주신다(요 14:26).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시며 끊임없이 헌신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로 변화되면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하시는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을 더 밝히 알수록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사랑도 나날이 깊어진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참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니 만사가 행통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03 영의 세계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체이면서 능력 자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공간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 말씀하셨듯이 기사와 표적, 희한한 능, 기이한

일 등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천국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영의 세계를 본 듯, 만진 듯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마 13:13) 한 대로, 복음을 들어도 내세 곧 천국

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영혼들이 영의 세계를 보고 믿게 하려고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이다.

영의 세계가 확실히 믿어져야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녀들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서 더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임보승 집사 (55세, 2대대 12교구)

경북 울진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평탄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제게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1997년 8월, 회식 후 동료들과 3차를 가기 위해 이동 중 동승한 차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가드레일을 받고 봉 날아 전봇대에 부딪쳐 4m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된 차에서 구조돼 9일간의 병원치료를 마치고 귀가해 보니 조수석에 탔던 제가 운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주이자 진짜 운전한 동료가 제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지요. 저희를 구조한 사람의 증언으로 1년 4개월 만에 저는 무혐의 판결을 받고 그 동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든든한 사회적 배경을 안고 저를 무고죄로 고소해 저는 3년 형을 받게 되었고, 뒤에 탔던 동료는 1년 형을 받았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동료에게 혐의를 떠넘긴 파렴치한으로 보도했고, 이후 제가 항소함으로 1년으로 감형됐지만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만난 한 줄기 빛,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은 뒤

2003년 서른아홉의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되니 분통을 못 이겨 자살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랄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2001년부터 지인의 전도로 울진의 한 교회에 다녔던 저는 그곳에서 성경을 세 번 이상 읽어 보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처형(황순애 권사)이 넣어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게 되었는데,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원함이 임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선악과를 두신 이유’ 등에 관한 명쾌한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져 희열이 넘쳤지요.

2004년 출소 후, 저는 다니던 교회에 나가며 새벽기도로 마음을 추슬렀지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니 심령은 끈고해져만 갔습니다.

꿈을 통해 만민의 양 떼가 돼 당회장님 기도로 아들의 폐렴을 치료받고

제 아내(황승자 집사)는 언니의 전도로 2005년 6월부터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해 연말이 다가오자 제게 만민중앙교회에 가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서울까지 가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꿈에 흑암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 환한 불빛이 보여 그곳으로 가니 십자가가 보였고, 더 가다보니 무대 위에서 이재록 목사님이 이리오라 손짓하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니 무대 뒤 공간을 여시며 저를 데리고 새하얀 빛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 뒤 저는 마음에 확신을 얻고 서울로 올라가 만민중앙교회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렸고, 이후 온 가족이 포항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8월에는 무주에서 열린 전 성도 하계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해주신 기도를 받은 뒤 당시 열네 살이었던 아들(임정훈)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 때부터 폐렴을 앓아 수시로



아내(황승자 집사)와 딸(정혜), 아들(정훈)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아 뼈만 앙상했던 아들은 약을 달고 살 정도로 병골이었는데, 당회장님께서 해주신 단 한 번의 기도로 폐렴은 물론 모든 병이 치료되어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니 가정애 싸움이 그치고 아내의 질병도 치유돼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해 결혼 후에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기려고만 하니 아내에게서 이혼하자는 말도 수시로 들었지요. 그러나 만민의 양 떼가 된 뒤 서로가 낮아지고 이해하며 섬겨주려 하니 집안에 싸움이 그치고 화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해 저는 틈나는 대로 ‘만민뉴스’를 이웃에 전했고,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사모하여 2012년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 밤마다 다니엘철야에 참석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연약한 몸을 타고난 아내는 햇빛 알레르기, 요실금, 기관지확장증, 안구건조증, 역류성 식도염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아내에게서 맹장에 점액낭종(맹장의 출구가 폐쇄되어 내강 안에 점액 물질이 고여 낭종 형태로 발전하게 된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복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요. 2016년 7월, 현 상태를 알고자 MRI 촬영을 하니 점액낭종이 1cm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몸에 큰 이상이 없었기에 가끔 통증이 올 때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으며 넘겼지요.

2019년 3월, 하나님께 온전히 치료받고자 결단한 아내는 작정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해 3월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 통회자복을 하게 됐고, 성령의 불이 입해 온 몸이 땀범벅이 됐지요. 그 뒤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병원 검사를 해 보니 점액낭종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저는 구역장과 살롬성가대로, 아내는 구역장과 금빛성가대로, 딸과 아들도 청년선교회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희 가정을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내 황승자 집사의 MRI 촬영

▲ 기도받기 전
1cm 크기의 점액낭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보임

▲ 기도받은 후
1cm 크기의 점액낭종이 깨끗하게 치료됨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연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